

“미주 한인 2세 청소년, 더 강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것”

2020 온라인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성황리 열려

매년 수많은 미주 한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왔던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이하 YHC)가 지난 21일 부터 23일까지 “확신(Steadfast)”이란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순 무브먼트(KCCC)에서 주관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6학년년부터 12학년 한인 2세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YHC는 뉴욕과 플로리다, 아리조나, 위싱턴, 조지아, 뉴저지, 네바다, 하와이 등 미주를 비롯해 멕시코에서도 참여했으며, 찬양과 말씀, 기도회와 헌신의 시간,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컨퍼런스 주 강사로는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대표), 대니 한 목사(MTG Church), 김대훈 목사(New Beginnings Church)가 나섰고, 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LGBTQ, 순결, 사회정의, 중독 등에 관한 주제 강의를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며 한인 2세들의 고민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번 YHC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종술 목사는 “한인 2세 학생들에게 쉬우면서도 깊이 접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고, 각 가정에서 참여하더라도 그 장소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했다”며 “마지막 날,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1500여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던 '하이어콜링(Higher Calling) 컨퍼런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이기송 목사는 “이미 인터넷은 이 시대 십대들의 소통의 통로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

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작 및 방송됐던 모든 자료들을 유튜브에 올려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오윤태 목사는 “한인 2세 청소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무기

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가 됐다”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기성세대 보다 더 강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종교의 자유 언제나 수호할 것”

토머스 벤키트 대주교 서거 850주년 선언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토마스 벤키트(Thomas Becket) 영국 대주교 서거 850주년 기념일에 맞춰 발표한 공식 선언문을 통해 전 세계에 종교적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표된 이 선언문은 벤키트와 관련해 “종교 자유의 사자”라고 표현하며,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이나 미국 헌법이 있기 전부터 교회가 자유와 평화를 얻는 데에 생애를 다 바친 인물로서 소개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헨리2세) 왕이 클라렌드 칙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려고 했을 때, 토마스는 그 불쾌한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면서 “ 분노한 헨리 2세가 왜 가난하고 겸손한 이 신부가 감히 그에게 반항할 수 있는냐고 위협하자 벤키트 대주교는 하나님은 왕 위에 계신 최고 통치자이며 우리는 인간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며 계속 선포했다”고 전했다.

‘클라렌드 칙령(Constitutions of Clarendon)’이란 영국에서 교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White House/Tia Dufour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16개의 조항으로, 교회의 특권과 교회 법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됐다. 벤키트 대주교는 여기에 서명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을 몰수당한 뒤 프랑스로 추출됐다.

이후 영국에 복귀한 그는 종교재판관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온건한 처벌들을 내리자 헨리 2세와 반목하게 됐고 결국 왕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벤키트는 죽을 당시에 “예수의 이름과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고, 오늘날까지 종교 자유의 기초를 놓은 기념비적인 인물로 남아 있다.

트럼프는 선언문에서 벤키트를 기리며 “신앙인에 대한 범죄는 중단되어야 하고,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하

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하며, 취약하고 무방비한, 억압받는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또 “중세 시대에 양심에 충격을 줬던 폭정과 살인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이 서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종교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국가는 견딜 수 없다”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의와 선과 평화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밸리채플 **MP채플**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집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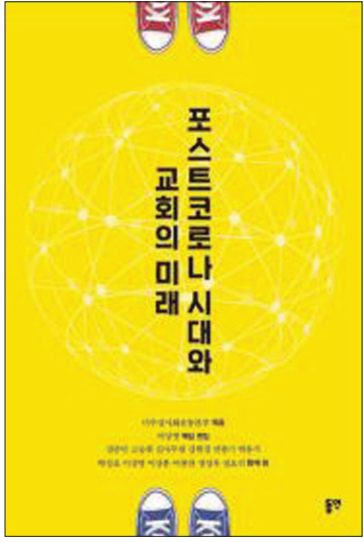
주일 1부 오전 10:00
 주일 2부 오후 1:00
 수요일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주인애교회 ICCC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www.icccla.org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인과 교회공동체의 지향점을 모색한다

[신간]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2020년은 세계사에도 전대미문의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인 해프닝이 아닌 앞으로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이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얼마나 큰 파장이 일 것인가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종교, 기독교, 개신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이지만 대면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의 속성상 개신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교회의 대응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사역하는 목회자, 신학자, 교육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진단하고, 교회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생각을 모았다.

책에서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 사무엘 박사(인공지능 과학자), 민종기 목사(중현선교교회), 박동식 박사(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정요석 목사(세움교회), 이상훈 박사(미성대학교 총장), 박성호 목사(ANC 온누리교회), 강준민 목사, 김현경 박사(월드미션대학교 크리스천 상담학 교수), 정성욱 교수(덴버신학대학원), 이종찬 대표(J&B 컨설팅) 등 미주에서 사역하는 12명의 신학자와 목회자, 전문가들은 12가지 소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팬데믹 현상을 신앙적,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후의 시대에 우리 개인과 교회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책의

지향점이었다. 즉, 이 책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 개신교인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신앙에 대한 본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흑사병 등 팬데믹을 겪었던 과거, 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책임과 존재 이유 그리고 1차원적인 외관의 교회에만 매몰된 주일 성수를 초월 등 좀 더 개신교인으로서 본질에 대해서 다가가는 노력을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제시한 책이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글이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의 개신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상명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역습이 가져온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질게 드리우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가올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의미한다.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개인 라이프스타일, 교육 환경, 문화 소비 패턴, 사회 서비스 방식, 사회 시스템, 세계 경제 구조, 국제 정

세 등 우리의 일상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종기 목사는 “루터의 고백처럼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지만 신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며 “만일 이웃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교회의 공공성 즉 공동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동식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는 ‘공존’을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요석 목사는 “일부 사람들은 주일에 공적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를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주일 성수와 주일 공예배는 같지 않고, 주일 성수는 주일 공예배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며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바로 잡았다.

이종찬 대표는 “21세기의 기술 발달,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간은 ‘이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신학적,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일상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강준민, 고승희, 김사무엘, 김현경, 민종기, 박동식, 박성호, 이상명, 이상훈, 이종찬, 정성욱, 정요석 | 도서출판 동연 | 368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미주 한인 교계 공개 포럼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모에게 오는 교인들, 어떻게 상담해야 할까?

월드미션대학교 사모세미나
1월 20일(수)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사모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 가지의 주제로 열릴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우선 “교인들 상담, 어떻게 감당할까요?”라는 주제로 2021년 1월 20일(수) 미 서부시간 오후 4시, 줌(Zoom)으로 실시된다.

강사로는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 교수이자 남가주침례교회 담임목사 사모인 송경화 교수가 나선다. 송 교수는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왔으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참가비는 없으며 대상은 교회 사모, 또는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번 세미나 이후 “사모로서의 정체성 찾기”와 “자존감 세우기”, “목회자 가정의 부부생활과 자녀교육”을 주제로 후속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388-1000으로 할 수 있다.

사모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1
교인들 상담, 어떻게 감당할까요?

- 일시: 2021. 1. 20 (수) 오후 4시 (미 서부시간)
- 참가: 신청자에게 Zoom 번호 추후 공지
- 신청: 선착순 50명
- 강사: **송경화 교수 Ph.D**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석사,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남가주침례교회 담임목사 사모
- 세미나 교육내용: 사모들이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지침
- 후속 세미나(추후 안내) 주제:
2. 사모로서 정체성 찾기와 자존감 높이기
3. 목회자 가정의 부부관계와 자녀양육

문의 및 신청: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미주 대한신학대학 · 대학원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미주 대한신학대학·대학원(총장 류당열 목사)이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사이버 통신 과정은 미주 지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가 인준한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1995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주 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아 신학사, 음악 학사,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

영하고 있다.

교수진으로는 신학 개론에 류당열 교수, 기독교 음악에 김숙영 교수, 실천신학에 최아람 교수, 기독교 성가개론 안홍식 교수, 선교학에 이용규 교수, 구약개론 이은규 전 안양대학 총장, 기도학에 강지원 교수가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임현수 목사가 객원 교수로 나선다.

한편 종신형을 선고 받고 캘리포니아 감옥에서 수감중인 한인 백성경씨도 류당열 목사의 지도로 세례를 받고 미주 대한신학대학·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는 전화 213-505-1947 류당열 목사, 310-598-0746 최아람 목사로 할 수 있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남가주 밀알, 장애인들과 성탄의 기쁨 나눠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목사가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성탄 선물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총 20

차례 이상 진행된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통해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장애인 가정에 도시락, 쌀, 라면, 과일,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마스크,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과 22일에는 크리

스마스를 맞아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장애인 가정에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산타페 스프링스(Santa Fe Springs)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사랑나누기 행사를 진행

했고, 엘에이 지역은 밀알 사역자들이 장애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선물을 나눴다.

장애인 가정에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남가주밀알선교단 봉사자들이 장애인 가정에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남가주밀알선교단 봉사자들이 선물 상자에는 쌀, 라면, 과자, 참치, 음료 등의 식료품과 함께 한국산 마스크, 그리고 쌀쌀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급 조끼와 후드티 등을 담았다.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코로나 방역지침 강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집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선물이었다.

밀알로부터 푸짐한 선물은 받은 장애인 가정은 크게 기뻐하면서 "선물 자체도 감사하지만, 밀알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정겨운 안부인사를 나누며 기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종희 목사는 "코로나 사태로 몇

달 동안 서로 만날 수 없던 밀알가족들이 잠시나마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확인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봉사자들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남가주밀알선교단으로 알려달라"며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이 더욱 큰 소외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에 동참을 원할 경우 후원물품 전달 및 온라인 송금 서비스 앱인 'Venmo'를 이용해 직접 후원할 수 있다. (남가주밀알 Venmo ID: @Milal-Mission-SCA)

로스앤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원 및 신년사업 발표



류당열 목사

로스앤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신임원 및 분과위원을 발표하고 2021년 사업을 발표했다.

로스앤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공동회장으로 류당열 목사, 엄규장 목사, 김성대 목사, 고문으로 이시곤 목사, 박효우 목사, 협동 총무로 광대진 목사, 서기에 최아급 목사, 회계에 이병영 목사를 선출했다.

또 분과위원장으로 이단 분과에 한선희 목사, 언론 분과에 정요한 목사, 여성 분과에 강지원 목사, 전도 분과에 엄안나 목사, 방송 분과에 김숙영 교수, 부흥 분과에 잔서 목사를 선임했다.

로스앤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1년 주요 사업으로 교도소 선교, 노숙자 선교, 양로원선교, 불우 이웃 돕기 등을 꼽았다.

구세군 자선냄비, 연일 1만 달러 고액 수표 기부 됐다

남가주 한인들 코로나19에도 구세군 자선 냄비 성금 모금 동참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남가주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은 따뜻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2일과 23일,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 자선냄비에는 연일 1만 달러의 고액 수표가 기부됐다.

기부자는 "올해 거리에서 자선냄비를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 돕는 사회가 되어, 선한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철 사관은 "유난히 힘든 한 해였지만 한인들의 사랑의 온정은 남아있었다"며 "올해는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과 비슷한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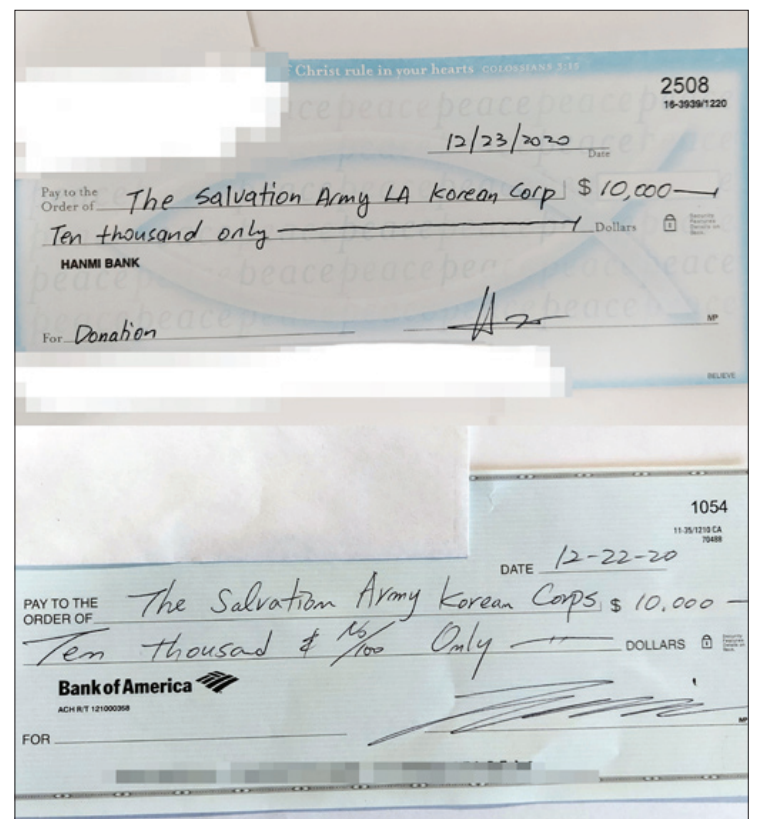
이 모여 질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관은 이어 "코로나로 힘든 모금 활동이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 큰 성금을 해 주신 기부자들로 인해 더 따뜻한 연말이 될 것 같다"며 "기부자들의 바람처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세군 자선 냄비 성금 모금에는 고액 기부 외에도 "자신도 힘이 들지만 더 힘든 사람에게 사용해 달라"는 손편지와 함께 300달러를 기부하는 등 한인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지난 19일 지역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배포한 데 이어 21일에는 한인가정을 대상으로 100 달러 상당의 성탄선물을 100가정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동욱 기자



구세군 나성교회에 연일 기부된 1만달러 고액 수표 ©기독일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의연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빛은 그로 의연하지 않았다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교도단), 주선애교수(성신대 영학교수), 이종필교수(수원대),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권준목사(유일대), 신정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지목사(영일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년 5달부기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 통일선교 도서는 복음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리성도들의 순교종교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아웃: 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낸다면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辯護 변호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장이로움을 갖추는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實力 실력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精誠 정성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벨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責任 책임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8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3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야베스의 기도가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1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신 전도서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우리는 1월 1일부터의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 될 수만 있으면 지난해 묵은 시름들은 다 지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는 것이 인지상정 이리라.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그러나 사실은 어제의 일을 오늘도 이어 나간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가는 차이나 매일의 삶에서 다음 날로 가는 차이나 다 같은 하루하루이고 다 같은 중요한 날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어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오늘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선교지의 하루는 사실 새해의 의미보다 오늘의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오늘 일과를 시작하며 어제 못한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

지난 한 해 동안 필자를 격려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다. 칼럼의 글에 공감하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로 이슬람 나라들에게서 그토록 엄청난 선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물었던 분들, 전화로 또는 이메일로 그리고 직접 만나서 참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기억나는 필자의 지인 중에 “목사님은 이슬람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줄 알았는데 돌연 멕시코 선교지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것이 못마땅하다”는 분도 있었다. 필자도 한동안 내가 어찌하여 멕시코 선교사가 되었을까 하며 실감이 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필자는 기도하며 멕시코 교회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동역자로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할 선교의 리더십들이 되어 함을 깨달았다. 우리 신학교의 이 우수한 신학생들이 선교 훈련을 더욱 강하게 받기를 바란다. 선교 비전을 갖고 지경을 넓히는 기도와 비전을 갖게 되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세계 선교사 대열에 함께하며 열방의 영혼구원에 주역이 될 사명자들이 배출될 것을 믿는다. 필자는 그 꿈을 갖고 우리 신학교의 청빙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의 단기선교팀들이 미주에서만 200

여 명 단기선교 중이다. 초등학교부터, 은퇴 사역자들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여 각기의 선교 대상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팀을 나누었다.

단기선교팀 중에는 특수 사역을 담당하는 의료팀, 기술팀, 선교사 자녀 훈련팀, 중보기도팀 등 여러 사역들로도 나뉘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임국의 문이 열린 이슬람권 나라들로 들어가 연말과 새해를 선교 현지에서 보내고 들어오게 된다. 한국의 선교팀들이 팬데믹 정적으로 모두 선교를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은 북중미 나라들의 선교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전개하셨다.

필자의 SNS의 창틀에는 각종 팀들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수없이 밀려 들어온다. 그중에서는 긴급 기도제목들이 있다. 이집트의 팀에서 만난 현지 형제가 주님을 영접하려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인해 낙담하고 있다는 소식, 어느 팀의 형제가 열이 나서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소식, 비행기 편이 막혀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소식 등등.. 기도제목들 받으면 전국에 있는 기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기도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팀들의 지원 가운데 선교부흥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3주간의 겨울 방학 중인데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고향 다녀오는 것, 외출까지도 자제하고 교내에서 60명이 함께 연말연시를 보냈다. 이들에겐 꿈이 있다. 신학을 마친 후 펼쳐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의 꿈을 꾸며 실로 열심히 훈련한다. 그들과 함께 함이 행복이요 축복이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입니다. 매년 성탄절 전후로 베들레헴은 신비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도,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양치기들도, 목자들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언덕도,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들도 모두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물론 베들레헴이 현재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출생지이고 기독교의 성지이지만 현실은 전형적인 아랍 도시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도시 인구의 20%내외가 거주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도시 경제를 좌우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들레헴의 최대 라이벌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기독교 신자가 희귀합니다. 두 도시가 예수 팔이 장사를 하는 관광지입니다.

현재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770여 미터 산지에 있습니다. 베들레헴(히브리어: בֵּית לֵחֶ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Beth'와 빵, 떡, 등의 의미를 가진 'Lehem'이 합쳐져 “떡집 혹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아담이 베나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라헬을 장사한 곳(창 35:19)입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라(창 35:19, 48:7, 미 5:2)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롯기의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며 그 후손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미가의 집 제사장의 고향도 베들레헴이며, 에브라임 지방의 한 레위인의 첩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역대 하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의 결과 요르단이 점령하였으나, 1967년에 6일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오늘날

평화 협정에 따라 1995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도시의 통치권을 넘겨주고, 그 해 12월 21일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베들레헴 인구는 2만 5천 명 가량인데 지난 2000년간 성지순례객이 끊이지 않고 찾아 늘 봄비는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라는 공적인 확인은 2세기 초대 교회 지도자인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감독입니다. A.D.100년경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저스틴은 철학을 공부하며 진리를 찾다가 복음을 접하고 신앙인이 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익숙했던 그가 예수님의 탄생지를 세상에 알렸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4세기 이후에 예수님 출생지를 공인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기념 교회(Church of the Nativity)는 동굴 교회입니다. 이 동굴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처음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기독교 말살을 도모했던 히드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AD 135년경에 아도니스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는데, 333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헬레나는 313년에 개종을 한 후 아들 콘스탄틴을 설득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하게 했습니다. 325년에 헬레나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하며 세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무덤 장소에, 둘째는 예수님 탄생 장소에, 셋째는 예수님 기도 장소(올리브산)에 지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초대 교회에 신앙

공동체가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제5대 교황(재위: 100년~107년)인 에바리스도가 베들레헴출신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에바리스도 교황은 교황 클레멘스의 뒤를 이어 로마 5대 교황이 됩니다. 그는 안디옥으로 이주하여 활동하다가 교황으로 세움받지만 베들레헴에서 신자가 되어 안디옥으로 이주했습니다. 짐작하건대 베들레헴에는 상당한 기독교 공동체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탄생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공유합니다. 세 종단이 성당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팽팽한 긴장 속에 공유합니다. 탄생교회의 대부분은 그리스 정교회 소속이지만 예수탄생동굴 위의 제단에서 왼쪽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소유하고, 구유동굴 부분인 구유제단과 구유는 가톨릭 소유라고 알려집니다. 이런 소유권 주장이 관광 수입과 결부되어 있어 비뚤한 세속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모든 성지 순례자들은 예수탄생 교회에 겸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은 높이 1.2m의 작은 문입니다. 누구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이문을 통과할 수 있어서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이 성탄절 정신입니다.

한편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처음 주장한 사람은 3세기 초 로마의 역사학자 히폴리투스였습니다. 당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세기 중엽,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베들레헴이나 12월 25일에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 의미는 구원을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시는 굴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탄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의 말구유에 모셔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美 연방 순회 항소법원, “뉴욕주, 집합제한 중단하라”

‘엄밀하고 철저한 조사’ 기준 따른 것인지 재고해야

미국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종교단체들이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뉴욕주는 모든 집합 제한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10월 초 발표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예배 인원 제한 조치가 브루클린 로마가톨릭교구와 정통 유대 공동체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 모임의 규모를 10명 이하 또는 수용 인원의 25%로, 위험이 덜한 지역의 경우 25명 이하 또는 수용 인원의 33% 중 더 적은 수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이 계속 중일 때는 제한 조치를 금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는 정부가 어떤 예배당에

도 이 같은 제한조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P는 전했다.

항소법원은 관련 사건을 브루클린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집합 제한이 ‘엄밀하고 철저한 조사’ 기준에 따른 것인지 재고하라고 명령했다.

종교자유법률단체인 베크(Becket)은 지난 28일 “엄밀하고 철저한 조사” 기준은 헌법에 알려진 가장 높은 기준이라며 “뉴욕주는 회당과 교회, 사원의 참석 인원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박(Michael Park) 판사는 소견에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법적 대안이 가능한 상황에서 위험적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어 따라 일부



3일 진행된 그리스정교회 성니콜라스 예배당 및 성전 복원 공사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쿠오모 뉴욕주지사 와 엘피도포로스 대주교가 나란히 참석했다. ©Flickr/ governorandrewcuomo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추수감사절 직전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뉴욕

코로나19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한 뒤 나온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대응행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테네시주 7세 소년 불길 속에서 여동생 구해



엘리 데이비스. ©보도화면 캡처

이달 초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 한 7살 소년이 불타는 집에서 어린 여동생을 구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직 소방관인 니콜 데이비스와 그녀의 남편 크리스 데이비스는 지난 12월 8일 오후 8시 30분경 자택에서 3명의 아이들을 재웠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온 집안이 화재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니콜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시 30분경 누군가 날 깨

웠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크리스가 아이들을 데려올 시간을 벌기 위해 소화기를 손에 쥐었다. 아이들이 불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붙잡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 아이들은 2살 된 아들 엘리야와 7살 엘리였다. 몇 분 만에 불길에 걸릴 수 없게 되자, 부부는 22개월 된 딸 에린을 아기 침대에 남겨둔 채 안전한 곳으로 뛰쳐나갔다.

니콜은 인터뷰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우리가

그 아이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연기와 불길이 너무 짙어서 아기에겐 다가갈 방법이 없었다”며 “우리는 창문을 통해 아기에겐 다가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지만, 도무지 그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엘리는 그의 아버지가 방 창문을 깨고 여동생을 데리러 가자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후, 용기를 냈다고.

엘리는 인터뷰에서 “아빠가 창문을 부수고 나서 두 번이나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많이 무서웠지만, 여동생이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크리스 데이비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엘리가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그 아이는 성인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이들 가정은 현재 집이 전소되어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 2년 연속 트럼프 대통령 선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년 연속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 선정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18%의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를 뽑은 이들은 백인 중에선 24%였던 반면, 비백인 중에선 5%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6%로 3위에 올랐다.

갤럽은 공화당 지지자는 48%가 트럼프를 지목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을 32%와 13% 지목하며 표가 갈린 것을 트럼프의 1위 요인으로 꼽았다.

과거 12년 동안 1위를 지켜온

오바마는 12%로 2위를 기록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1위를 했지만, 올해 밀려났다.

미국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3%)이 4위, 프란치스코 교황(2%)이 5위를 차지했다.

올해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선정됐다. 미셸은 10%의 지지율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6%)은 2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4%로 3위,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3%로 그 뒤를 이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릭 워렌 “코로나로 예배 중심 교회의 악점 드러나”



릭 워렌 목사. ©NRB 제공

미국 새들백교회 리 워렌(Rick Warren) 목사가 최근 기독교 라이프 잡지인 ‘레버런트(Relevan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많은 교회가 사역의 다른 측면 대신 예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릭 워렌은 인터뷰에서 “코로나는 교회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빼앗긴다면, 아무것도 안지 못한다. 그것이 보통 교회들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들백 교회는 한 가지 목적이 아닌 5가지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원 하나를 빼내도 다른 4개의 원이 더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사명을 수행 중이며 교제를 이어가고 있고 제자도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는 자립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워렌 목사는 결과적으로 예배가 중단된다고 해서 교회가 폐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새들백 교회가 지난 3월 이후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으며 매일 평균 80여 명의 회심자들이 생겨난다고 전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새들백 교회 운영진은 주변을 둘러본 뒤, 코로나가 야기한 모든 문제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요구들을 충족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워렌은 새들백 교회의 식량 배급사업인 ‘푸드 팬트리 팍업스(food pantry

pop-ups)’를 예로 들며 “이 개발을 위해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학교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들백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식품 배급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30만여 가구에 350만 파운드가 넘는 식량을 제공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서 “모두가 선교사이며 당신은 증인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나눌 방법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온 16,000명 중 12,000명 이상이 개인적인 성도들의 일대일 증거를 통해 왔다. 내 설교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이 아니다. 일대일 전도를 통해서였다(one-on-one evangelizing)”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캘리포니아 주의 엄격한 예배 제한 명령이 많은 교회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배 장소만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보진 않는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워렌은 “극장이 문을 닫지 않고, 축구 경기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차별일 수 있다”면서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재정 책임을 위한 복음주의위원회(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의 워렌 버드(Warren Bird) 연구원은 앞서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면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미 남침례교, 올해 700개 구제 사업, 140만명 지원



올해 미국 남침례교단(SBC)이 시작한 구호 사업인 ‘샌드 릴리프(Send Relief)’가 전 세계에 1만 여 개 지역 사회에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40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고 배티스트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교단의 북미선교위원회(NAMB)와 국제선교위원회(IMB)이 합작한 이 사업은 2월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고, 구제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샌드 릴리프는 남침례교 재난구호팀(SBDR)과 협력하여 팬데믹 초기에 개인 보호 장비 22만 8천 세트를 의료 전문가들과 응급 대원에게 우선 제공했다.

또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전 세계의 소외 지역을 포함해 뉴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미국 전역 등에 식량을 제공했다. 특히 장기적인 빈곤 해결을 위해 쌀 생산 공장을 짓거나 농부들에게 차를 경작해서 수확,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업을 진행했고, 남미의 외딴 지역에서는 이동 가능한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 제공했다.

이 단체는 또 북미 12개 지역에 사역 센터(Ministry Center)를 설립하여 교단 선교사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샌드 릴리프는 이 센터가

내년까지 20개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는 역사상 기록적인 규모의 폭풍과 허리케인이 미국과 중앙 아메리카, 아시아 국가들을 잇따라 강타했다. 또 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서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황폐화시켰다.

SBDR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올해 7975개의 재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고, 75만 개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여 공급했으며, 팬데믹 격리 기간 동안 1천 40만 파운드 이상의 음식을 배급했다.

이와 함께 자원 봉사자들은 6800회 이상 복음을 전했다며 875명의 신앙 고백을 받았다고 단체는 보고했다.

샌드 릴리프의 브라이언트 라이트(Bryant Wright) 회장은 “회장에 취임한 첫 주에 코로나가 온 세계를 폐쇄했다”면서 “구호팀을 구축하는데 집중하면서, 나는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은 세상이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사람들의 수가 그러하다”고 말했다.

강연숙 기자



LA 지역

LA 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후 7:00
평일부 예배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 2인2제를 역임하며, 이민가정들을 돌보아, 선교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생년부/EM 오후 2:00 수요일침례/기도원(수) 오후 7:30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 386-2233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tdta.com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라티노 오후 6: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산타모니카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갈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 6:00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복귀
“죄송한 마음... 외부활동 삼갈 것”



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총회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3일, 1년여 만에 주일예배 강단에 복귀했다. 김 목사는 이날 1부 예배 설교 직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읽으며 복귀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김 목사는 “2021년을 맞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했던 모든 것에 죄송한 마음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낮아짐으로, 그리고 더 교회다워짐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 일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는 명성교회 교우들을 중심으로 목양하고 맡겨주신 선교 사명에 집중하겠다. 외부활동은 삼가겠다”며 “고난과 수고 속에서 말씀을 전하신 원로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로목사님의 헌신을 통해 자리를 비운 저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영적 풍요함을 누리고 믿음의 성장을 한 전환의 복이 되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지키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며 “명성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심어린 우려와 질타를 견뎌온 자 세로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1년 넘게 수행하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모든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

의 은혜가 새로운 시대를 소망으로 채워갈 것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목사는 ‘기대의 차원을 높이라(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편 30:18~22)라는 제목으로 주일예배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오랜만에 돌아와 사역을 시작하는데 혹시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 ‘김하나 목사가 돌아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아실 것은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저를 향한 막대한 기대보다는, 그 1차원적인 기대보다는 한 단계 높여서 2차원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높은 길은 아니지만 그다음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며 “2021년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내에 대한 기대를 먼저 가져보시길 바란다.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 그것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의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성교회가 속한 예정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소위 ‘수습안’을 가결하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올해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김 목사는 지난 1일 자정께 송구영신예배에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가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영 기자

전광훈 목사에 ‘무죄’ 선고한 재판부
“표현의 자유, 민주 사회의 근간”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2년, 명예훼손 6개월 등 총 2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총선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 등의 발언으로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

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측은 판결 직후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판결 후 지지자들 앞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전 광훈은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기게 돼 있다”며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언방제를 통해 북한하고 섞으려고 하는 당심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치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니다. 저는 선지자”라며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를 봤다. 내가 했던 말이 조금 무리가 있다 쳐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밝혔다.

“매주 토요일 5천만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튜브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그는 12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전광훈 목사

Advertisement for Torrance Joongyo Church featuring Pastor Kim Woo-ju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Cornerstone Church featuring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and service times.

O.C., 엘바인 지역

Advertisement for CMF Church featuring Pastor Kim Chol-mi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Galbori Saesangmyeong Church featuring Pastor Min Seung-ki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감사한인교회 featuring Pastor Goo Bong-joo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Namgaju Bellen Church featuring Pastor Oh Byung-ik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Namgaju Dongshin Church featuring Pastor Bae Jeong-woo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Namgaju Sunbokmyeong Church featuring Pastor Lee Il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Namgaju Saesomang Church featuring Pastor Kim Seung-wo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NEXT Saramgyeong Church featuring Pastor Wang Sang-woo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LA Immanuel Church featuring Pastor Choi Sun-gil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Nlppurunseonggyeong Church featuring Pastor An Chang-hoo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Namgaju Neulsarang Church featuring Pastor An Sang-hee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Da Gamgasa Church featuring Pastor Kim Il-gwo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Dounijezail Church featuring Pastor An Seung-bok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Laguan Hills Yeonhamgamli Church featuring Pastor Lim Hyeon-choo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Mijubeon Church featuring Pastor Lee Seung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Bette Church featuring Pastor Kim Hyeon-yo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Saemmul Church featuring Pastor Jeong Gyeong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Elba In Eunuri Church featuring Pastor Park Seung-woo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Elba In Chimle Church featuring Pastor Nam Seung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Orejizakarunta Hanin Church featuring Pastor Nam Seung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Eunhehanin Church featuring Pastor Han Gyeong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Jeongeumaeul Church featuring Pastor Shin Hyeon-gyu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Hanjigeon Church featuring Pastor Park Hoon and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기독교일보 (Christian Daily) newspaper with contact information.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속에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해오면서 터득되는 믿음의 비밀이 바로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은사도 정말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재목인데, 복음을 위해 태울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고자세, 다 통달한 것 같이 말하는 어투, 심지어 그 태도는 얼굴 표정에서조차 읽힙니다.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믿음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장애물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세월을 보내는 안타까운 신자들도 간혹 만나봅니다.

고 손인식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영어로 통역을 했기에 더 자세히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 총정리 메시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는 평범한 설교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목회의 엑기스를 담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늘려야 할 것이 있고, 줄여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대신 기도를 늘려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인본주의를 줄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역시 믿음의 비밀은 태도에 있음을 유언처럼 남기신 것입니다.

새해를 열면서 갖는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는 항상 그 해의 모토를 주제로 잡습니다.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과 단혀 있는 현장 예배가 우리가 넘어야 할 높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고도를 끌어올리며,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율해는 외부 강사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칼로 우리의 못된 태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스터 트롯에 이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대회를 보면서 저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기본기가 잘 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평은 노래 부르는 버릇이 잘 못 들었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노래 부르는 태도가 좋고, 나쁘다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유발 강사 지그 지글러(Zig Ziglar)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적 가치를 적용하여 충분히 신앙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도가 좋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저의 30년 담임목회의 삶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갈 때 '당신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귀한 아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밖에는 없는 삶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건강과 자녀와 물질의 복도, 그리고 명예와 상급과 존귀함까지 플러스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6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의 독일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고, 나치들은 주일 성당 미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강령 24조에는 '당은 긍정적인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은 없고, 오직 자기들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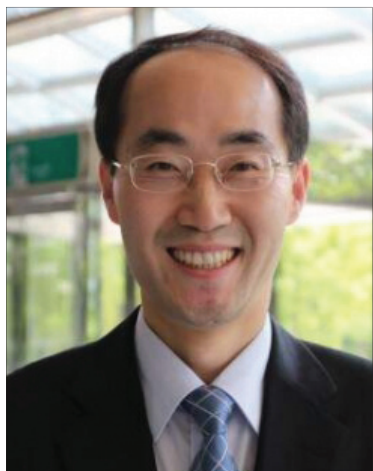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마귀의 유혹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1년에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플러스 인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와 파행을 겪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파는 계속되지만, 누구나 겪는 슬럼프 속에서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듯이, 신앙의 기본을 잘 붙들고 시작하므로 성장과 역전승을 이루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의 문제요, 죽음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과 영생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애써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바벨탑과 같이 공허와 무의미로 끝나게 되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영생이 더하기 되고, 하나님이 더하기 되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협력하여 선이 되는 역전승의 삶이 되고, 플러스의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잃어 버리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황한다. 믿음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믿음과 지식을 동일시하는 것은 철저한 오류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과 동일시 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방언이나 신유나 축사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에 기초한 어떤 신앙적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종교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 역시 철저한 오류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란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질문이나 의문도 없이 그냥 믿어 놓고 성경을 믿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안되더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따지지 않는 믿음 즉 맹신이 큰 미덕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언급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태도는 현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본질은 위의 세 가지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첫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이기 전에 인격적인 신뢰(personal trust)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뢰란 믿어 주는 것(believing in), 그 사람이 믿음만한(trustworthy)분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depending on), 의존하는(relying on) 것을 뜻한다. 믿음의 대상에게 기대고 의탁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entrusting)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의 선한 의도와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의탁하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며, 또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요 임금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 즉 주님의 주되심(lordship)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인격적인 신뢰라는 말은 어떤 명제적인 진리나 교리가 우리 믿음의 간접적인 대상이긴 해도,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설명되고 정리된 명제적인 진리나 교리가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 명제적 진리나 교리가 지시하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는 어떤 명제적 진리나 교리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적 진리와 교리가 증거하고 지시하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둘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과 함께 시작하

고, 바른 지식에 기초하며, 바른 지식을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시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이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고,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믿음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의심도 질문도 제기하지 못한 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이성적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하며, 그 지식과 함께 시작된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한번도 우리에게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도리어 질문과 의심이 섞인 약한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면한다(롬 1:17). 중세 신학자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 1033/4-1109)이 주장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일 수 밖에 없다.

셋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적 경험과 체험을 낳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믿음이 가진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체험, 용서가 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경험, 사랑과 무관했던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차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경험, 때로는 신비한 은사에 대한 체험 등 다양한 경험과 체험들이 바로 참되고 바른 믿음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순종과 실천에 이르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 순종과 선행과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고백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귀신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약 2:19).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른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논리적 필연이다. 우리의 순종이 연약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믿음은 항상 순종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뿌리라면, 순종은 열매이기 때문이다.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마련 아닌가?

그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안타깝게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모로 오해해 왔다.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바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갱신과 개혁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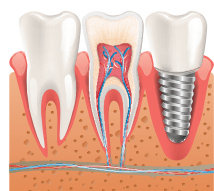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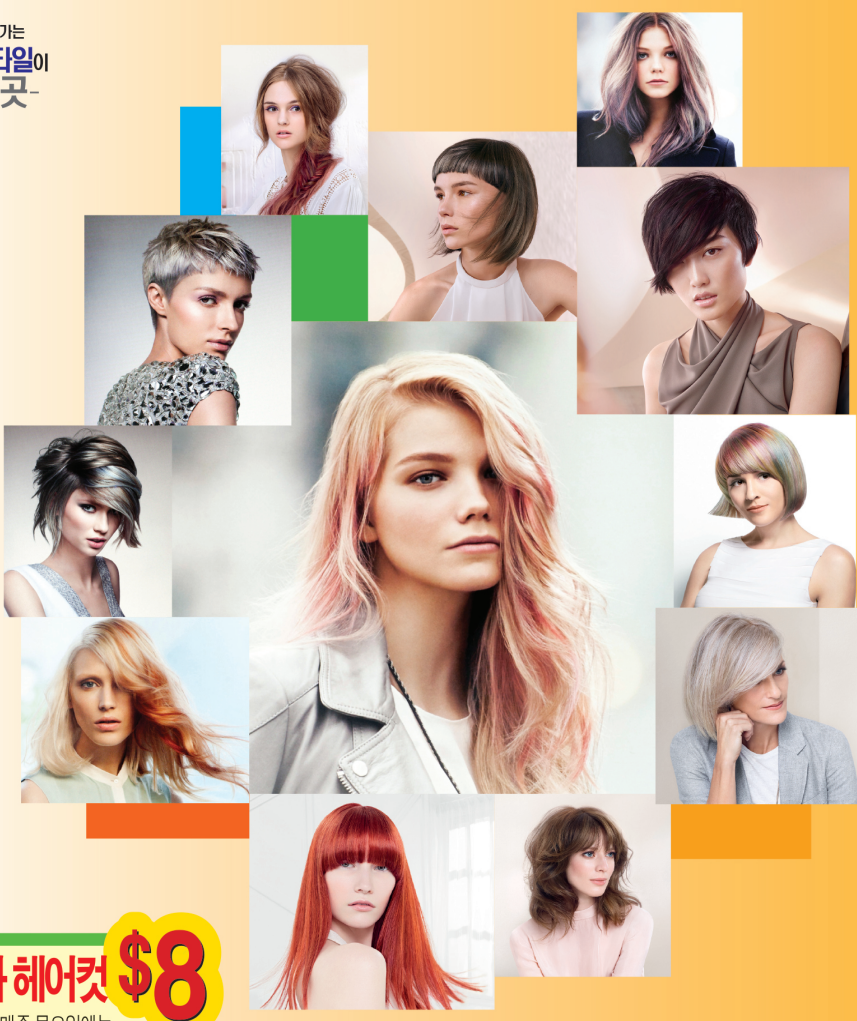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는 말과 본회퍼 신학

영화 <작전명 발키리>, 해당 계획 흥미진진하게 그려 본회퍼, 반정부 활동 이유로 체포됐다가 가담 드러나 현 집권세력, 히틀러와 달리 매우 소심하게 정국 운영

◆신학과 암살: 디트리히 본회퍼와 영화 <작전명 발키리>

미국 내 종교학 관련 학회들 가운데 최대 규모인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의 연간 정기 학술회의가 11월 말 개최되어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작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컨퍼런스 장소를 정해 대면으로 전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 학술회의는 미국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회기 중간 중간 한국의 신학 연구자들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면들이 목격되었다.

미국 현지에 방문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학술회의 참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국내 신학 및 종교학 연구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셈이 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 사태 자체는 당연하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학술연구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은 만연한 불행 속의 작은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학회에서 본회퍼 연구분과의 발제 및 토론회에 입장해 본회퍼 신학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과 견해들을 접할 수 있었다. 클리포드 그린(Clifford Green) 같은 본회퍼 연구의 거장을 온라인으로 만나보는 참신하고 뜻깊은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국내에서도 신학 및 종교학 연구자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 반드시 들었던 적 있는 신학자일 것이다.

그는 반정부 활동으로 나치 당국

에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에 수감된 뒤, 1944년 시도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독일의 항복 선언을 약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교수형을 당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Valkyrie, 2008)는 본회퍼가 연루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른바 ‘발키리 작전’의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본회퍼는 독일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예비역 장성 루트비히 베크와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계획하고 있던 7·20 음모(1944년 7월 20일 히틀러를 암살하고 베를린의 예비군 병력을 동원해 수도를 장악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계획)에 가담하고 있던 1943년 4월, 미리감치 나치 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는 당시 히틀러의 정국운영과 전쟁 방향에 반대하던 7,000여명 가량의 독일 내 유명 정치인들과 군부 지도자들이 대거 가담하고 있었다. 이들 중 약 5,000여명이 사건 이후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다.

본회퍼는 1943년 체포될 당시 히틀러 암살미수 사건이 아니라 나치 정권의 폭력적 국가 운영에 반대하는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로서 반정부 활동을 한 이유로 체포됐다가, 1년 후 7·20 음모가 실패한 뒤 관련 인물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암살 시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이렇듯 본회퍼는 정의 구현을 위해 폭력조차 불사하고 목숨을 바친 저항과 실천의 기독교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행적은 그의 신학적 사고 전반을 조망해 봤을 때 단지 말단의 결과론적 면모에 불과하다.

그와 같이 절박한 행동에 나서기 전, 그는 미리감치 독일의 철학



1944년 7월 20일에 벌어진 히틀러 암살 및 나치정권 전복시도에 가담했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Duquesne 대학

과 신학 역사 전반을 통해 형성된 근대 독일의 인간 이해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비판을 마친 상태였고, 그 심각한 문제점을 지목해 대단히 정교한 신학적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였다.

본회퍼가 히틀러 암살시도에 가담한 것은 나름 방대한 신학적 작업을 이뤄놓은 상황에서, 탄탄한 사상적 고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신학과 실천: 본회퍼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

지난해 전광훈 목사가 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각을 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국을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은 자동차”로 비유해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본회퍼가 직접 한 말이 맞다. 이는 그가 테겔 수용소에 있을 때 동료 수감자에게 들은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동료 수감자는 본회퍼에게 “기독교인인 당신이 어떻게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게 되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본회퍼는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을 볼 때, 목회

자가 할 일은 그 자동차에 치어 죽는 이들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보다 먼저 그 미친 자를 운전대로부터 끌어내리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개인적으로는 전광훈 목사가 이 일화를 인용한 일이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본회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본회퍼의 사상과 행적의 가장 피상적이고 결과론적인 측면만 보고서, 자신의 대정부 비판 행위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본회퍼가 말한 ‘미친 자의 운전대’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인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 한 마디에는 본회퍼가 이해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섭리, 인간 인식과 존재의 시간적-역사적 한계, 관계 유비(analogia relationis)의 원리, 인간의 선형적 사회성(고독과 포용의 변증법적 긴장과 얽힘), 루터교적 죄성 이해(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행위로서의 계시,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내부 인격 간 관계 모형과 그에 따른 비종교화(dereigionization)의 실천원리 전반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이 목회를 담당할 교회 신자들과 기독교계 내 동조자들을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기반을 확장하려 하는 사심으로 가득찬 인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언중유골(言中有骨)이어야 할텐데, 막상 전광훈 목사의 본회퍼 인용에는 진정으로 존재해야 할 뼈(骨)가 없는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의 정책 방향 및 정국 운영 방식이 결코 흡족하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허점과 실책들로 얼룩져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본회퍼가 상대해야 했던 미친 자, 즉 히틀러 수준으로 취급될 정도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애초 그럴 낯장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산주

의 적대국들에 맞서면서도 미국에 마저 상당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국민적 반감과 국제적 고립을 감당하고 서라도 유신체제와 반미자주정책을 추진했던 말년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교해 본다면, 현재 한국의 집권 세력은 외부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를 조심히 살피면서 상당히 ‘소심하게’ 정국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비유는 애초 성립될 여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실언은 꽤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기독교 우파 세력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이들에게서 간간히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계 전반의 지적 평판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내 본회퍼 연구자들의 노력이 폄하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신학 연구자들이 본회퍼의 사상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연구를 이어왔고, 독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본회퍼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에도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이제 향후 몇 주간 이어지는 논평에서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노력들을 부각시키는 한편, 본회퍼의 사상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오해와 편견들을 적절한 신학적-인간학적 통찰을 통해 불식시키는 내용들을 전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본회퍼 신학의 이론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초기 및 전기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던 터라,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그리고 신학사의 관점에서 본회퍼가 가르친 인격, 교회, 그리고 사회의 의미와 그가 제시하는 온전한 기독교적 실존방식에 관해 소개할 터이다.(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7·20 음모를 다룬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 등장하는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툼 크루즈 분), 거사의 실행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8.15 집회에서 본회퍼 발언을 인용하는 전광훈 목사. 한국교회 일각에 퍼져 있는 본회퍼 사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입증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뒤 현수막에도 본회퍼 이름이 보인다.



올해 미국종교학회(AAR)의 본회퍼 연구분과 발제 및 토론의 진행과 사회를 맡았던 본회퍼 연구의 대가 클리포드 그린. ©유튜브

김도인의 아트독서 영성, 지성 그리고 품성

언택트 시대, 목회자가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은



1.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택트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 되자, 목회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목회자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영적 상태를 체크하려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한다. 의심을 품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독서하고 글을 쓰느라 기도에 소홀한 편이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보다 훨씬 많이 기도를 한다. 꽤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기도원도 올라가고 있다. 이는 영성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에게 영성은 핵심이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목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키워드는 여성, 영성, 창조성이다.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문학과 지성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즉 영성의 갈증 때문이었다. 그가 일생을 바친 문학은 딸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다. 하지만 영성은 죽음 앞에서 초라함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해주었다. 언택트 시대 목회자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야 한다. 즉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2. 지성을 갖춰라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에서 '공부하는 교회,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다수가 대학 출신이 되었을 때 교육 수준이 낮은 목회자가 어떻게 정신적 지적 수준이 높은 교인들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한 마디로 바쁘고 힘들더라도 목회자는 더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란다. 많이 알고 높이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수준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공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우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문학적 무지는 지나질 정도이다. 교리만 배우고 강요당했을 뿐 교회사에도 관심이 없으며 인간 문제에 대한 지식도 세상 사람들보다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독서를 통해 신앙을 얻고 신앙을 높여가는 크리스천이 매우 드물다. 보수적인 대형교회일수록 독서를 통한 신앙을 발견하기 힘들다." 그는 기독교가 아직도 희망이 있으려면, 목회자가 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회자가 지성을 갖추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공부다. 목회자가 왜곡된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것은, 지성의 결핍 문제일 때가 많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목회자는 세상 리더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자기를 성장케 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구역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보다 범위가 더 크다. 필자는 책 『독서광에서 독서광으로』에서 이런 말을 했다. "독서가 신앙생활이다." 독서가 신앙생활이라면 목회자는 지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한다. 설교자를 10년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는 지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지성을 갖추기 위해 주야로 공부한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필자는 동네의 여러 군데 카페에서 글을 쓴다. 카페에서 글을 쓸 때, 목회자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주로 여기저기서 교회의 문제점만 들춰내는 대화를 할 뿐이다. 하지만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꽤 많이 본다. 최근에 다니는 카페에서도 나이가 지긋한 분이 매일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

목회자는 지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나는 예전에 교회 규모가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다. 교회 규모가 큰 사람은 일단 성실하다. 지성을 갖추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울이다. 바울은 지성을 갖춘, 지성을 추구한 사람이다. 지성이 있었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언택트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통로는 온라인이다.

온라인상에는 엄청난 지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언택트 시대에 목회자가 지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3. 품격을 갖춰라

목회자는 영성을 갖춰야 한다. 지성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품격을 갖춰야 한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에게 품격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국 총리를 두 번 역임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품격 있는 유머로 갚은 일화가 있다.

영국의 첫 여성 하원의원인 낸시 애스터(Nancy Astor)가 면전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내 남편이였다면 당신 커피에 독을 타겠어요." 그러자 처칠은 의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면 그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처칠의 기품 있는 품격을 볼 수 있다. 목회자는 품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품격에서 우등생이어야 한다. 그것이 언택트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 가는 방법이다. 수사학에는 세 가지가 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다. 그 중 품격을 나타내는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품격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독일 철학자인 쇼펜하우어(Schopenhauer)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다. 첫째 인격과 인품(도덕성, 지성, 건장), 둘째 소유물(재산), 셋째 인상(명예, 명성, 지위 등)이다. 그는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에게 근본이 되는 품격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품격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 빈곤에서 오는 문제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포스코전략대학 석좌교수를 거쳐 민족문화 콘텐츠연구원장, Salon In Moon 대표인 박재희는 예전 KBS '아침마당(2014. 12. 10)'에서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품격을 갖춘 친구 한 두 명이 최고다." 품격 있는 친구가 최고라면, 목회자는 못 사람들의 품격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언택트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된다. 필자는 아직 품격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기에 품격을 갖추기 위해 몸부림친다. 나는 누가복음 16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품격을 갖추고 싶다. 탕자의 아버지는 품격이 남달랐다. 그런 품격을 지녔기에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꼭 껴안아주면서 받아준다. 이런 품격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높은 품격을 갖춘 목회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적지 않은 지성인들이 교회에 갔다가 목사들 간의 교권 대립이나 교리 갈등에 따른 인간적 품격의 후진성을 목격하고 떠나는 경우를 보곤 한다." 이런 이야기는 목회자들이 품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목회자는 품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리더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



김도인 목사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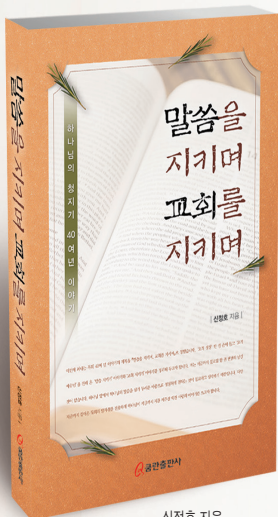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시사저널로 등단하여 한국연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연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아민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상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이사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장영성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98면 / 15,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동신교회, 총회 권역총회 부원,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총동문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목사, 연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셀리온 CELLREON  유한양행 *New Origin*

www.cellreon.com | 213-738-8000